

영어 교재에 대한 국내 연구 분석*

김해동

한국외국어대학교

Kim, Hae-Dong. (2013). An analysis of journal articles on ELT materials in Korea. *Modern English Education*, 14(1), 225-242.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journal articles on ELT materials, over the past 12 years, in Korea. A total of 155 published articles were obtained by the method of relevant key-word search from nine leading journals certified by the National Research of Foundation. The results of the analysis revealed that the majority of studies examined aspects related to materials used in primary school education, while only 15 studies covered university student materials. The most frequent area of study was materials analysis, followed by materials development, and lastly, selection. The most frequently used method for the study was an analysis, followed by surveys. Based on the analysis, it is suggested that not only should the analytic study on language-related aspects in materials be examined, but also various research focuses and methods should be included more in leading journals.

[article analysis/ELT materials/논문 분석/영어 교재]

I. 서론

영어 교재 분석 및 평가와 관련된 연구는 Roberts(1998)가 응용언어학 사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20세기 말까지는 비교적 소수의 전문가에 의하여 이루어져 온 영역이다. 그러나 최근 Tomlinson(2012)의 관련 문헌 분석 논문에 따르면 비교적 새로운 영역이기는 하나 전 세계적으로 활발하게 연구가 되고 있는 영역이 바로 영어 교재에 대한 연구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우리나라의 영어교재에 대한 연구의 경향이 21세기에 들어서 어떻게

* 본 연구는 저자의 2010년 제6회 한국어교육 학술대회 주제 발표문 '영어 교재의 최근 경향 및 특성: 영어 교재 연구 분석'에 기초하고 있음. 이 연구는 2012학년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의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

진행되었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교재와 관련된 우리나라 영어교육의 심층적 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과업이라고 하겠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과업을 수행하는 것에 있다. 구체적으로는 2000년부터 2011년까지의 지난 12년간 우리나라 저명 영어교육 관련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의 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 교재 연구의 최근 관심사와 경향을 파악하고 향후 교재 관련 연구의 지평을 넓히고자 하는 목적으로 한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의 연구문제를 다음과 같이 명시적으로 설정하기로 한다: 지난 12년간 영어교재에 대한 국내 학술지에 수록된 연구의 전반적 특성은 어떠한가?

본 연구에서 지칭하는 ‘교재’는 ‘학습자의 학습활동을 유발 시키는 모든 것’으로 하여 포괄적인 기능적 정의에 기초하기로 하며(H. Kim, 2002), 교과서, 활동책, 교사지침서, 전자매체 등 관련된 ‘것’들을 모두 나열하거나 분류하는 교재의 물리적 정의는 지면의 제약상 심층적으로 제시하지 않기로 한다. 본 연구에서 시도하는 영어교재와 관련된 연구에 대한 분석은 영어 교재와 관련된 최근의 초점 및 경향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와는 차별이 있다. 즉, 최근 출간된 영어 교재를 선정하여 분석하거나, 영어 교재와 관련된 교사나 학습자의 반응을 비교 분석하는 등의 교재와 관련된 직접적 연구를 시도하는 것이 아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영어 교재에 관한 최근의 학술적 연구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통하여 영어교재와 관련된 국내의 관심사와 최근 경향을 파악하는 것에 있다.

학술적 연구의 분류 방식은, 지난 1970년대 이후 현재까지 영미권에서 실행한 영어 교재에 대한 연구의 문헌 분석을 통하여 설정하기로 한다. Tomlinson(2012)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교재 관련 연구에 대한 분석의 결과는 향후 우리의 상황적 맥락에 적절한 영어교재의 평가, 현장 활용, 개발 및 연구에 있어 주요한 기초 자료가 될 것이다. 이러한 점이 본 연구의 의미라고 할 수 있다.

II. 이론적 배경

1. 영어 교재 관련 연구에 대한 분석

영어 교재와 관련된 연구를 조사하여 이에 대한 분석을 시도한 연구의 경우, 국내에서는 주로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분석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국외의 경우에는 논문에 대한 분석보다는 시대별로 혹은 관련 주제별로 주요 문헌들에 대한 논의를 시도하는 형태로 영어 교재와 관련된 연구를 다루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의 경우 주로 주제별, 대상 학급별로 학술지의 영어교재 관련 연구를 분류하여 분석하고 있다. 정영국과 조미옥(2003)은 1995년부터

2003년까지 국내 저명 4개 학술지에 실린 영어 교재 관련 연구 29편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교재 개발 및 평가 모형에 대한 연구가 3편, 초등교재 대상 연구가 13편, 중학교재 대상이 7편, 대학교재 대상이 4편, 남북한 교과서 대상이 2편임을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보면 초등교재가 국내에서는 연구 대상으로 관심을 많이 받는 상황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성희(2006)는 1965년부터 2006년까지 영어교육 학술지에 수록된 교재 관련 논문 54편을 분석하였다. 시기적으로 65-70년까지는 어학실용 교재가 중점적으로, 70-80년은 중등, 대학과정의 교재가, 81-90년은 중등과정의 교재가 중점적으로 다루어 졌으나, 91-2000년은 초등학교 교재에 대한 연구가 처음 소개되고 교재의 구체적인 부분이 심도 깊게 다루어졌다고 보고 하고 있다. 이러한 심도 깊은 연구는 2000-06년까지 지속되고 있음을 또한 보고 하고 있다. 연구 주제 분야를 보면 영어 교재와 관련하여 구성, 내용 관련 12편, 동기, 흥미, 수준 7편, 기능, 실용서 5편, 어휘 5편, 난이도 5편, 문화요소 5편 등으로 이러한 측면들이 영어 교재 연구 즉 영어 교재와 관련하여 강조 되었다고 분석하고 있다. 최근에는 현대영어교육 학술지를 대상으로, 김정희(2011)가 시도한 연구가 있다. 이 연구 역시 주제별로 2000년부터 2009년 학술지에 수록되었던 18편에 달하는 논문들의 연구 초점과 대상 및 연구 접근방법을 분석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국내의 경우 학술지의 교재관련 연구논문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모색하는 연구는 지속 되어왔다. 이러한 흐름에 비추어 본 연구가 시도하는 분석은 앞선 연구의 지속선상에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크지 않다. 다만 연구대상을 확대하고 학술지 별 특징을 비교하는 점은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해외의 문헌을 보면 교재연구와 관련하여 시도된 문헌 분석 연구는 많이 보고된 바가 없다. 이는 아마도 특정 환경이나 대상으로 국한 하지 않으면 분석자체가 광범위 하게 되어 연구가 어려운 까닭이라고 추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영어교재 연구에 대하여 문헌 분석을 하는 경우 이들은 주로 주제와 관련하여 주요 문헌들을 언급하고 논의 하는 형태를 취하게 된다. 영어교재에 대한 문헌 분석 논문을 발표한 Tomlinson(2012)의 경우 교재 개발과 관련된 문헌에 주로 초점을 두며, 교재 개발의 역사 속에서 주목을 받았던 주요한 문헌들을 언급하고 있다. 그는 교재 평가 및 활용과 관련된 문헌을 요약정리하고 교재 개발 프로젝트나 관련 현장 연구들에 대하여 정리 보고 하며 21세기 초반까지의 영어교재 관련 문헌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Rubdy(2003)나 Crawford(2002)의 경우는 20세기 말까지의 영어 교재 관련 문헌을 분석하면서, 교과서의 장단점에 대한 주장을 담은 문건이나, 교재 선정과 관련된 문헌에 대하여 분석을 하고 논의를 시도하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문헌에 대하여 분석하는 해외의 연구들은 주요 문헌들은 내용을 다루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주목할 만한 경우는, Skierso(1991)가 자신의 영어 교재 평가표를 제시하면서, 108개의 평가기준은 63개의 선행 교재 평가표를 총괄

분석하여 만들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면서 자신의 교재 평가표는 일종의 문헌 분석적인 역할도 하고 있다고 하였다. 아마도 이러한 사례를 제외하고는 해외 연구의 경우 문헌 분석적인 시도가 보고된 바가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해외의 연구들이 시도하는 주제별 문헌 분류 방식을 토대로 국내의 선행연구들이 시도하여온 정량적 분석을 시행하기로 한다. 다시 말하자면, 분석 방법은 국내의 선행 연구와 같은 방식을 따르되 내용상 분류 방식은 해외 연구들이 제시하는 주제별 분류를 참고하여 분석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제별 분류 방식을 통하여 우리나라에서 진행되는 연구에서 간과된 점이나 과도하게 집중된 점을 파악할 수 있다면, 우리나라 교재 연구의 방향성에 대하여 제안할 점이 본 연구로 도출될 수 있으리라 본다.

2. 영어 교재 연구 분류

영어 교재 관련 연구는 다양한 주제 기준을 통하여 분류될 수 있다. 그간의 영미권 선행 연구들을 보면, 영어 교재 연구와 관련된 연구는 다음의 여섯 가지 분류가 가능하다고 하겠다. 1)주제 영역별, 2)대상별(교과서 및 비교과서 등) 3)방법별, 4)저자별, 5)출처별(국내 및 해외), 6)시대별 추이 비교. 이들 여섯 가지 분류 항목별 내용과 이를 통하여 파악 할 수 있는 영어 교재의 변화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연구 주제 영역

교재 관련 연구의 연구 주제 영역별 분석은 영어 교재 관련 연구의 분포에 대한 분석으로써, 어떠한 영역에 대한 연구가 그 동안 많이 실행되어 왔는지를 파악하는 유용한 방법이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영어 교재의 변화를 주목할 수도 있다. 문헌상의 예를 들어 어떠한 주제들이 연구 영역으로 다루어졌는가를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영어교과서의 기능 및 유형에 따른 역할에 대한 논의가 있다(Allwright, 1981; O'Neill, 1982). 교과서의 기능은 교과서의 외형 보다는 학습활동, 교육과정, 교사 등과 관련하여 교과서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와 관련된 것이다. 교과서의 유형은 수준별로, 대상 학습자 집단(단일 모국어 배경, 여러 모국어 배경 등)별로, 매체 별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을 논의한다. 이러한 문헌들의 초점은 대체로 교과서가 가진 순기능적인 측면과 역기능적인 측면을 부각하여 학습자 훈련이나 교재 활용에 대한 내용을 소개함에 있다. 대체적으로 70년대 80년대에 교과서가 아닌 자료집의 출간이 많아졌을 때 이러한 연구가 등장하였다.

둘째, 영어교재를 선정하는 기준에 대한 연구가 있다. 이러한 문헌들은 영어교재를 선정하는 목록표(checklist)나 기준(criteria)제시에 초점을 두고 있다.

연구자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목록표가 제시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정성적 반응을 염두에 둔 논의형 목록표, 교재에 수록된 것을 정량화하여 분석하는 것에 중점을 두는 수량형 목록표, 그리고 보다 복잡한 교재 사용 맥락 및 상황을 반영하는 가중치 반영 수량형 목록표 등이 있다. 제시 되는 기준들도 연구자에 따라 최대 108개(Rubdy, 2003)의 기준이 나열되기도 한다. 이러한 기준표를 살펴보면 과거의 기준표들은 청화식 교수법 교재를 선정하는 기준을 중요시하고 현재에 와서는 의사소통중심, 과제 중심 교재를 선정하는 기준을 중요시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셋째, 교재의 선정 과정이나 절차에 관한 연구이다. 이러한 연구는 사례연구 형태로 보고되기도 하며, 이론적인 탐색에 근거한 선정과정의 분류가 제시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교재에 대한 예비-중간-기말 평가(Breen & Candlin, 1987; Sheldon, 1987), 교재 출판전-출판후 평가(Roberts, 1998), 교재 예측 평가 - 회고 평가(Ellis, 1998), 거시적 평가-미시적 평가(McDonough & Shaw, 2003) 등에 대한 분류가 이에 속한다. 또 다른 분류 방식으로는 일차적으로 각종 출판사에서 출간된 많은 교재들을 기초 조사하여, 선정 가능한 교재들을 고른 후, 선정된 교재를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며, 이 결과를 기초로 하여 대상 교과과목을 염두에 두고 평가를 실시하는 것이다. 이에 근거하여 교재의 선정을 하는데, 조사 단계는 여러 교재를 전체적으로 훑어보고 대체적인 인상을 근거로 교재를 선정하는 것으로서, 대충 평가(flick test)(Matthews, 1985)나 인상 평가(impressionistic overview)(Cunningsworth, 1995)라고 지칭 할 수 있다. 여기서, 분석 단계의 주요 목적은 일차 선별된 여러 교재를 내용과 형식에 따라 상대적 비교를 하는 것에 있다. 평가 단계는, 평가자가 교사와 학습자 및 기타 여타 변수를 고려하여 교재가 적합한가를 판단하는 것이 주 작업이다. 특히 90년대 이후 영어 교재는 보다 복잡하게 진화하였는데 이에 따라서 교재 선정 절차도 복잡하게 되어가는 경향이 있다.

넷째, 영어 교재 선정 기준과는 분리하여 교재의 내용에 대한 분석연구가 있다. 교재 평가는 교재 사용자에게 관심을 두고 교재 사용 결과와 잠재적 가치에 대하여 판단을 한다면, 교재 분석은 교재 자체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밝혀내는 작업이라고 볼 수 있다(Cunningsworth, 1995).

다섯째, 영어 교재 개발에 관한 연구이다. 1970년대 의사소통중심 교수법의 도래와 함께 이전의 문법 번역식의 교재 구성에서 상황, 주제, 기능 등이 주축이 되는 교재로 변화하게 되었다. 이러한 교재 변화와 더불어 1980년대에는 교재에 개발과 관련된 저서들이 출현한다. 예를 들어 Sheldon(1987)의 *ELT textbooks and materials: Problems in evaluation and development*. Byrd(1995)의 *Material writer's guide*나 Tomlinson(1998)의 *Materials development for language teaching* 등 영어 교재 개발에 대한 교과서 급의 이론서들이 등장하게 된다. McGrath(2002)가 *Materials evaluation and design for language teaching*이라는 저서를 발간하고 Tomlinson(2003)은 전편의 후속편인 *Developing materials for*

*language teaching*을 발간한다. Mishan(2005)의 *Designing authenticity into language learning materials*와 같은 구체적인 초점을 두는 이론서들이 출간되었다. 이러한 교재 개발 이론서들의 특징으로는 듣기, 말하기, 쓰기, 읽기와 연관된 기능 훈련교재의 유형을 제안하거나, 특수목적용 영어 교재나, 과제중심의 교재 등 특정 유형의 교재 개발에 대한 제언을 많이 담고 있다. 물론 영어 학습과 관련된 개론적 이론서들도 교재 개발에 관한 제언들을 담고 있다(Harmer, 2007; McDonough & Shaw, 2003). 이들 저서들을 통하여 정형화된 교재 보다는 보다 다양하고 초점이 분명한 교재의 개발이 영어 교재 개발의 주된 흐름임을 간파할 수 있다.

여섯째, 영어 교재를 활용하는 교수법과 관련된 연구이다. 이러한 연구는 교재의 개발이나 교수법의 활용과 연계되어 주장이 된다. 예를 들어 준비-제시-발화(Presentation-Practice-Production)의 교재 구성과 관련된 제언이나, 과제중심의 교수법을 반영한 교재 개발(Willis, 1996)들이 이들의 구체적인 주제이다.

일곱 번째, 최근에 주목 받고 있는 연구 분야로 교재를 선정하는 교사(교사 지침서)와 관련된 연구이다. 예를 들면, 교재 선정이 교사훈련의 도구로 쓰일 수 있다거나(Tomlinson, 2003), 교사의 경력에 따라 교재 선정기준이나 고려사항이 다를 수 있다는 연구(Johnson의 7인, 2008)가 있다. 이러한 연구가 최근에 강화된 것을 보면 교사 지침서의 개발에 대한 관심이 계속 증폭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영어 교재의 사용과 관련된 사례연구가 있다(Richard, 2001). 이들 연구는 교사나 학습자의 반응을 중심으로 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실제 교재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연구이다. 영어 교재의 경우 현장에서 직접 사용 된 교재를 높이 평가하는 경우가 많으며, 서문 등에 현장 사용 여부 등을 명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영어 교재 관련 연구도 이러한 맥락에서 실행되고 있다고 보인다.

2) 연구 대상, 방법, 저자, 출처, 시대별 분류

연구 대상 별 비교분석(교재 개발과 교재 연구)은 연구대상의 범주를 유아, 초등, 중학, 고교, 대학(및 성인), 교사, 종합의 분류 등으로 분석하는 것이다(Cunningsworth, 1995). 이 기준은 영어 교재의 경우 수준별과 함께 연령별 교재 분류 및 출간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반영하는 것이다.

연구 방법 별 비교분석은 연구논문의 대상인 교과서나 교재, 교재 관련자의 반응 등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이론 제언 및 문헌 분석연구, 정량적 연구, 정성적 연구, 정량적 연구와 정성적 연구의 종합의 네 가지로 크게 분류한다. 이들 연구들은 영어 교재는 정량적 분석이 가능한 문법성 및 정성적 분석이 필요한 학습자의 성향 반응(Alderson & Scott, 1992)등을 포함한 매체로 간주한다.

연구 저자 별 비교분석은 연구의 보편성 및 국지성을 파악하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 특히 국외연구의 활발함과 비교하여 국내연구의 역동성을 파악하려면 연구저자별 자료도 파악하여 정보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영어 교재의 경우 저명한 저자들이 존재하며(McDonough & Shaw, 2003) 출판사들 또한 이들 저명 저자들의 인지도를 적극 활용하려는 경향이 있다.

시대별 추이 비교분석은 시대별에 따라 주제, 방법, 저자, 지역별로 관련하여 영어 교재에 대한 연구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러한 시대별 추이 비교분석은 영어 교재 연구의 후속연구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Crawford, 2002). 더불어 영어 교재가 시대별로 어떠한 주제, 저자, 지역적 관심을 받았는지를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 영어교과서와 관련하여 시대별 추이 비교 분석에 대한 연구 자료를 확보하여 분석하면 흥미로운 정보 자료가 되리라 보인다. 예를 들어 고등학교 영어과 교육과정의 변천을 중심으로 시대별로 나누어 연구 자료를 분류하여 볼 수도 있겠다.

III. 연구 방법

본 연구는 문헌 분석이므로 2000년을 기점으로 하여 최소 10년 이상 기간의 관련 문헌을 분석하기로 한다. 구체적으로 지난 12년간 국내 저명 영어 교육관련 학술지에서 다룬 영어 교재 관련 논문을 분석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대상이 되는 영어 교육관련 학술지는 학회간 영어교육관련 학술단체로 교류하고 있으며 한국연구재단에서 등재지로 인정 한지 최소 3년이 넘은 전문 학술지 이다. 즉, *영어교육*, *외국어교육*, *영어교육연구*, *초등영어교육*, *멀티미디어언어교육*, *응용언어학*, *영어어문교육*, *현대영어교육*, *글로벌 영어교육학회 학술지* 등 9 종류를 대상으로 한다. 이들 학술지의 논문 자료는 pdf파일로 전산화 되어 상용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본 연구자는 자료대상 검색어로 'textbook', 'materials', '교재', '교과서'를 활용하여 관련 논문을 검색 확보하기로 한다. 즉, 연구 논문이 스스로 제시하는 핵심어를 검색하여 분석 대상 논문으로 처리하였다. 따라서 본문 내용을 통하여 영어 교재를 다루게 되는 논문은 제외가 된다. 이러한 분석 대상 추출 방법은 김정희(2011)가 시도한 내용 전체를 파악하고 추출하는 방식과 다소 차이가 있다. 본 연구는 이점에 있어서 제한점이 있다고 할 수도 있다. 본 분석에서는 학술대회 발표문이나 석, 박사 학위 논문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그 이유로는 학술대회 발표문이나 우수한 학위 논문의 경우 공개 후 국내 학술지에 게재되는 경우가 다수인 점을 볼 때 분석이 반복 된다는 점, 그리고 향후 필요 시 분리하여 분석하는 것이 가능 하다는 점에 있다.

분석한 자료는 대상 교과서나 교재에 따라 초등, 중학, 고교, 대학, 일반의 5종으로 분류하기로 한다. 주제는 논문의 제목 및 초록에서 동일한 주제가 몇 번 나오는가를 전체 대상 논문을 통하여 파악하는 빈도수 검정 기법을 활용하기로 한다. 구체적인 주제의 초점은 문헌 분석에서 다루었던 영어 교재 관련 연구의 분류를 기초로 교과서 기능, 교재 선정 기준, 교재 선정 절차, 교재 분석, 교재 개발, 교수법, 교사 관련으로 나누기로 한다. 추가적 분류는 세부 영역별로 언어기능관련 영역과 교재의 요소영역으로 나누어 분석하기로 한다. 교재 분석을 위하여 사용된 연구 기법도 분석, 실험, 사례 중심으로 구분하고 정량화 하여 빈도 분석을 시도한다. 학술지별 연구의 특징은 개별 학술지의 주제별, 연구 방법별 분석을 기초로 대상 학술지의 정량적 비교상 특징을 서술하기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지난 12년간 만의 자료를 수집하여 빈도 분석을 하기 때문에 시대상의 변화나, 특정 저자의 연구 초점 등에 대한 분석은 시도하지 않기로 한다.

IV. 연구 결과

1. 전반적 개요

지난 12년간의 영어교육 관련 전문 학술지에 수록된 논문을 분석하는 작업은 영어 교재와 관련된 전문가들의 관심과 차후 영어 교재의 개발 방향 등에 대한 시사성 있는 자료를 제공하여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교재 관련 국내 연구의 지난 12년간 초점이 교재 관련 전문가들이 지향하거나 권장하는 연구 영역 및 방법과 대비하여 적절하거나, 미흡하거나, 과도하거나 하는 점을 파악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다음의 9개 대상 학술지에서 파악된 교재 관련 연구의 숫자는 총 155편으로 개요는 다음과 같다¹: 영어교육(28편:18%), 외국어교육(28편:18%), 초등영어교육(20편:13%), 영어어문교육(18편:12%), 영어교육연구(14편:9%), 현대영어교육(14편:9%), 멀티미디어언어교육(11편:7%), 글로벌 영어교육(12편:8%), 응용언어학(10편:6%). 이들 총 155편은 평균 매년 13편씩이 지난 12년 동안 영어교육 관련 학술지에 영어 교재 관련 연구로 수록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영어 교재에 대한 연구는 2000년대에 들어와 꾸준히 지속되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¹ 논문목록은 <http://builder.hufs.ac.kr/user/gsee/index.html> 의 교수별 자료실 - 김해동 자료실 참조.

2. 대상 교재

이들 학술 논문을 대상으로 하여 초등, 중학, 고교, 대학, 일반의 5종으로 연구 대상 영어 교재를 분류하여 본 결과 다음과 같이 파악 되었다. 초등 대상은 52(34%)편, 중학 대상은 32(20%)편, 고교 대상은 28(18%)편, 대학 대상은 15(10%)편, 일반 대상은 11(7%)편 이었다. 17(11%)편의 연구는 연구 대상 교재가 초등이나 중학 혹은 중학이나 고교 등 중복으로 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보면 초등영어 교재에 대한 연구가 월등하게 많았음을 주목할 수 있다.

표 1
학술지의 교재 대상

학술지	대상					
	초등	중학	고교	통합	대학	일반
외국어교육(28편)	7	4	7	4	2	4
영어교육(28편)	2	11	9	2	3	1
초등영어교육(20편)	18	-	-	2	-	-
영어어문교육(18편)	2	5	8	3	-	-
영어교육연구(14편)	8	2	1	1	2	
현대영어교육(14편)	6	3	1	1	1	2
멀티미디어언어교육(11편)	2	1	-	1	5	2
글로벌 영어교육(12편)	7	4	-	-	1	-
응용언어학(10편)	-	2	2	3	1	2
총합	52	32	28	17	15	11

이는 초등영어교육이라는 특정 학술지가 있는 까닭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초등영어 교재에 대한 전문가들의 관심이 높다는 증거라고 하겠다. 또한 초등영어교재의 경우 분석 대상이 되는 언어자료가 상대적으로 적은 까닭에 연구의 용이성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추론해 볼 수도 있다. 유감스럽게도 대학 영어 교재 대상 연구는 15(10%)편에 그친바 이는 아마도 대학 영어 교재의 경우 지난 90년대 중반 이후 외국의 영어 전문 출판사들의 교재들이 많이 쓰이고 있으며, 이에 국내 교재 개발 저자 및 연구자들의 큰 관심 분야가 되기는 힘든 까닭이라고 보인다.

3. 주제별 빈도

다음으로 주제별 빈도를 분류하여 본 결과 다음과 같다. 이곳의 분류는 앞서 문헌 분석에서 분류한 7개의 주제에 근거한다. 결과를 보면 교재 분석에 대한 연구가 83(54%)편으로 가장 많이 있으며 뒤이어 교재 개발에 대한 연구가 27(17%)편에 이르고 있다. 이는 아마도 교재 분석이 기본적인 연구 영역이며 연계하여 학습자 반응 및 교사반응 등 다른 영역도 연구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이 시도된 연구 초점이라고 하겠다. 해외 문헌, 특히 개론서 등에서 많이 다루고 있는 교재 선정 기준 및 절차에 대한 연구는 도합 20(13%)편으로 비교적 적은 수라고 할 수 있다. 과거 1990년대 영미권에서 주로 많이 논의되었던 교과서의 기능에 대한 연구는 2000년대에도 우리나라에서는 꾸준히 연구되어 오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교사와 관련된 교재 연구가 5(3%)편으로 소수이지만 시도되고 있다는 점이다.

표 2
학술지의 연구 주제 - 초점

학술지	주제: 초점						
	교과서 기능	교재 선정 기준	교재 선정 절차	교재 분석	교재 개발	교수법	교사 관련
외국어교육(28편)	1	1	2	16	6	1	1
영어교육(28편)	1	2	-	21	2	2	-
초등영어교육(20편)	1	-	2	10	4	1	2
영어어문교육(18편)	1	1	1	11	2	2	-
영어교육연구(14편)	2	1	-	7	3	1	-
현대영어교육(14편)	1	-	2	5	3	2	1
멀티미디어언어교육(11편)	1	-	2	-	7	-	1
글로벌 영어교육(12편)	1	-	1	9	-	1	-
응용언어학(10편)	1	5	-	4	-	-	-
총합	10	10	10	83	27	10	5

세부영역에 있어서 언어기능과 관련하여서는 수용적 기능인 듣기와 읽기 기능 관련 연구가 각 7(5%)편 9.5(6%)편으로 표현적 기능의 말하기 3.5(2%)편 쓰기 5.5(4%)편에 비하여 많이 시도되었다. 이는 최근 통합적 언어 기능을 포함한 교재 개발에 대한 제안이 높아지고 있는 흐름(Tomlinson, 2012)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비하여 어휘에 대한 연구는

21(14%)편, 구문에 대한 연구는 15(10%)편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아마도 말뭉치 분석 기법의 발달에 따른 결과 교재의 어휘 분석에 대한 새로운 연구들이 가능하였기 때문이라 추론할 수 있다. 구문의 경우 분석의 기준이 되는 언어적 규칙과 대조하여 분석을 하는 것이 비교적 연구상 용이한 까닭이 아닌가 추론하여 볼 수 있다. 아래의 도표들에서 세부영역이 나뉘는 경우 관련 영역을 소수점으로 나누어 표기하였다.

표 3
학술지의 연구 세부 영역별: 언어 기능

학술지	언어 기능					
	듣기	읽기	말하기	쓰기	어휘	구문
외국어교육(28편)	1.5	5	-	2	3	2
영어교육(28편)	1.5	-	1.5	2	3	4
초등영어교육(20편)	-	-	2	-	4	2
영어어문교육(18편)	-	1.5	-	1.5	3	4
영어교육연구(14편)	-	1	-	-	1	1
현대영어교육(14편)	1	1	-	-	1	-
멀티미디어언어교육(11편)	1	-	-	-	2	-
글로벌 영어교육(12편)	1	1	-	-	2	2
응용언어학(10편)	1	-	-	-	2	-
총합	7	9.5	3.5	5.5	21	15

표 4
학술지의 연구 세부 영역별: 교재의 요소

학술지	교재의 요소					
	과업 활동	멀티 미디어	제시 자료	내용	평가	학습자 특성
외국어교육(28편)	1	3	2	8	0.5	-
영어교육(28편)	5	2	3	4	1	1
초등영어교육(20편)	2	5	1	4	-	-
영어어문교육(18편)	2	-	5	1	-	-
영어교육연구(14편)	1	1	2	4	1	2
현대영어교육(14편)	-	3	2	5	-	1

멀티미디어언어교육(11편)	-	6	2	-	-	-
글로벌 영어교육(12편)	2	1	1	2	-	-
응용언어학(10편)	2	-	1	3	-	1
총합	15	21	19	31	2.5	5

세부 연구 영역에 있어서 교재의 내용에 대한 연구가 31(20%)편으로 다수를 차지 하였다. 이는 교재의 문화적 내용이나 과학적인 내용의 교재 등 연구자들의 다양한 관심이 내용 영역에 치중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뒤이어 멀티미디어 자료 관련 연구가 21(14%)편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는 최근 멀티미디어 자료의 개발과 더불어 교재의 개발이 함께 이루어진 결과라고 하겠다. 시각자료나 동화 등 제시된 자료에 대한 연구도 19(12%)편으로 상당한 정도로 이루어 졌다.

흥미로운 것은 교수법과 관련된 과업 활동에 대한 연구가 15(10%)편 있다는 점이다. 이는 교재와 관련된 교수법들 중에서 과업 중심의 교수법이 최근까지 주목을 받고 있다는 점을 반영한다고 하겠다. 학습자의 특성을 반영한 연구가 5(3%)편에 머문 점이나 평가와 관련된 교재 연구가 2.5(2%)편에 국한된 점은 다양한 연구가 필요한 교재 관련 연구에서 앞으로 보다 많이 시도되어야 할 연구 영역분야가 이들 이라는 점을 보이고 있다.

결국 지난 12년간 전문가들의 영어 교재의 요소에 대한 관심은 다양하지만 언어기능영역과 관련하여서는, 어휘나 특정 구문에 대한 선정, 배치, 분석 등에 깊은 관심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교재의 내용, 멀티미디어 자료, 다양한 자료 및 과업활동의 교수법과 연계하여 연구의 관심이 있음이 파악된다. 영어 교재의 개발 영역 보다는 교재의 분석이나, 선정 및 개발이론 등에 대한 연구도 상당 수 있음이 파악되었다. 이러한 관심 영역은 아마도 최근의 우리나라 영어 교재의 연구에 있어서 강조되는 부분으로 볼 수 있다.

4. 연구 방법론

다음은 연구방법론에 따른 분류이다. 도표상의 결과를 보면, 분석과 관련된 연구가 83(53%)편으로 전체 연구의 과반을 넘기고 있다. 이는 교재 연구의 특성상 교재라는 대상을 분석하는 것으로 연구가 종료될 수 있다는 이유에 근거한다.

일견 다행스러운 점은 교재의 선정이나 개발, 교사 훈련 등을 다루고 있는 사례 연구가 28(18%)편 있으며, 학습자나 관련 교사의 반응을 토대로 교재의 다양한 측면을 연구하는 설문 연구도 29(19%)편이 된다는 점이다. 아쉬운 점은 교재를 사용하여 학습자의 언어 발달에 직접적인 효과를 주었는가를 측정하는 평가를 포함한 연구가 8(5%)편이며, 설문과 측정을 포함하는 연구가 7(5%)편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영어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가 학습자의 영어 발달에 있다면, 교재가 학습자의 언어 발달에 어떻게 영향을 주었는가를 측정하는 연구는 앞으로 더욱 권장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표 5
학술지의 연구 방법

학술지	연구 방법				
	분석	실험 중심			사례
		설문	시험	통합	
외국어교육(28편)	18	4	1	1	4
영어교육(28편)	16	8	-	-	4
초등영어교육(20편)	8	5	6	-	1
영어어문교육(18편)	14		-	2	2
영어교육연구(14편)	4	6	-	-	4
현대영어교육(14편)	5	1	-	2	6
멀티미디어언어교육(11편)	1	3	1	2	4
글로벌 영어교육(12편)	10	1	-	-	1
응용언어학(10편)	7	1	-	-	2
총합	83	29	8	7	28

5. 학술지 별 특징

이곳에서는 학술지별 게재된 논문의 양적인 특징을 살펴 보기로 한다. 비록 국내의 영어 교육 관련 학술지들이 교재 관련 연구에 초점을 두는 편집진의 특성을 따로 갖고 있지 않고, 특정 연구자들이 특정 학술지에 게재하는 체제가 아니지만, 본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학술지들의 편집장과 편집진들이 영어 교재 관련 연구에 대하여 보다 넓은 시각과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접근할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외국어교육 학술지에 지난 2000년부터 2011년 까지 게재된 논문을 분석한 결과, 총 28편중 교과서 분석에 관한 논문이 16편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연구대상을 보면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총 11편으로 가장 많은 차지를 하고 있다. 이들이 다른 세부 영역들은 어느 한 분야에 치중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보다는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다. 즉, 2개국 이상의 영어교과서들 간의 비교 분석, 초중고교 영어 교재의 어휘 분석,

전자교재에 대한 논의, 코퍼스를 이용한 어휘 분석, 읽기활동, 쓰기활동 등 언어 기능의 영역별 활동 분석, 6차와 7차 교육과정간의 영어교과서의 비교, 7차 교육과정과 개정 교육과정 간의 영어교과서 비교 등이 있다. 더불어, 영어 교재 평가 모형, 초등교과서와 교육과정 분석, 초등교재 읽기내용 분석, 영어 교재의 과제 유형에 대한 연구들과, 듣기 활동과 영어 듣기 평가나 어휘프로그램등과 관련한 연구들도 주목된다.

영어교육 학술지에 게재된 영어 교재 관련 논문들은 총 28편이 있고 대상이 되는 교재 별로 보면, 보면 초등 2편, 중학 11편, 고교 9편, 대학 3편, 초등과 중학을 다루거나 고교와 대학을 다루는 연구가 2편, 일반 교재 1편으로 중고교 교과서 대상 연구가 큰 분포를 차지하고 있다. 2000년도 초반에는 7차 교육과정의 시행으로 인하여 중학, 고교 교재들이 7차 교육과정을 잘 반영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음을 볼 수 있다. 다른 학술지와 유사하게 분석에 관한 연구가 많이 있으나 언어기능이나, 어휘, 구문에 대한 연구도 포함하여, 과제활동, 동기, 문화 내용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연구가 수록되어 있다. 2008 이후 교재 관련 논문 게재편수가 다소 줄어들고 있으나, 주제 면에서는 여전히 다양함을 보이고 있다.

초등 영어 교재에 대하여 다루고 있는 초등영어교육 학술지는 20편의 관련연구가 파악 된다. 다른 학급간에 걸쳐 사용되는 교재와의 연계성을 다룬 2편의 연구 이외에는 모두 초등 영어 교재를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었음을 보이고 있다. 초등 영어 교과서 자체에 대한 조사가 특히 2002년에서 2004년까지 활발하게 이루어졌는데, 이는 2001년에 교육과정 개편으로 7차 초등 영어교과서가 도입됨으로써, 교과서에 대한 분석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학술지의 연구 논문의 특징은 다른 학술지와 달리 교재의 언어자료와 관련된 시험 측정도구가 연구 방법상으로 활용된 것이 6편으로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아마도 초등생의 언어 발달 정도가 연구기간 동안 변화할 가능성 높기 때문에 이를 직접 측정한 까닭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대상 학술지에는 교사의 교재 활용능력과 관련된 연구도 2편이 수록되어 있다. 분석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영역은 어휘 분석이며 그 외에도 대화문, 4가지 기능의 비율, 챗트, 헤지 분석 등이 있다.

영어어문교육에 게재된 영어교재에 관한 연구 논문의 경우 총 18편에 이르며 14편이 연구방법상 분석에 치중되어 있다. 연구조사의 대상물 또한 주로 검인정 중고교 영어교과서가 되어 있다. 분석의 초점은 화용법, 어휘, 문법, 과업중심 과제활동, 시각적 보조자료 활용과 관련하여 영어교재의 입력자료 및 교과내용을 분석 검토하고 있다. 또한 읽기, 쓰기와 같은 언어기능별로도 다루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분석 연구와 함께 교재 사용자의 설문 반응을 포함한 논문 및 교재 개발에 대한 사례연구들도 포함되고 있다. 이러한 점은 영어어문교육학술지의 최근 특징이라고 하겠다.

영어교육연구 학술지에 최근 12년간의 게재된 총 14편의 연구논문을 분류한 결과 다른 학술지와는 달리 학습자나 교사 등의 설문응답을 포함하는 조사연구가 6편을 차지하고 있었다. 교재 개발의 사례를 보고하는 연구도 4편에 이르러 분석연구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다른 학술지와 다소 다른 경향을 보였다. 이들 교재 사용자의 반응을 포함한 연구들은 목표 언어 사용국가의 문화학습이 내재된 교재의 분석과 교사와 학습자 요구 조사, 어린이 영어교육에서 그림동화책을 이용한 영어 학습 가능성과 그 효과, 다중지능 이론을 기반으로 만든 영어교육매체의 연구, 영어회화교과서에 대한 교사와 학습자의 반응과 대학수학능력시험과의 연계성 등이 있다.

영어 교재와 관련하여 현대영어교육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들은 총 14편이 있으며, 연구대상을 보면 다른 학술지들과 유사하게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6편)가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고, 그 뒤로는 중학교를 대상으로 한 연구(3편)가 많이 다루어 지고 있다. 연구주제별로 살펴보면, 내용중심, 주제중심 교재에 대한 연구, 교과서에 나타난 문화연구 등 교재의 내용과 관련된 연구가 많이 시행되고 있다. 뒤이어 최근 2~3년간 디지털, 코퍼스, 멀티미디어를 이용한 영어교재의 활용 및 실태분석이 주를 이루는데, 이는 최근 e-러닝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면서 이와 관련된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연구유형 및 방법에 있어서는 분석연구 5편 사례연구 6편, 실험연구 3편으로 교재를 사례를 보고하는 형태가 가장 많았다. 지난 12년간 현대영어교육 학술지에 발표된 교재관련 연구수가 14편인 점을 고려할 때 많은 연구가 발표된 것은 아니지만, 사례연구에 초점을 보이고 있는 특징이 있다.

지난 12년간 멀티미디어언어교육에 게재된 교재관련 연구 논문 수는 총 11편이고, 이 학술지의 특성상 멀티미디어를 개발하여 제작하는 교재에 관련된 연구들이 7편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웹을 이용한 단어학습이나 언어기능을 학습 할 수 있도록 한 프로그램 개발사례가 보고 되고, 전자교과서를 대상으로 하거나 코퍼스를 활용한 관련 연구가 수록되어 있다. 대상 개발 교재는 다른 학술지에 비하여 대학생교재가 주로 많이 다루어 지고 있으며, 개발과 관련된 사례연구 역시 다른 학술지에 비하여 비중이 높은 편에 속한다. 이러한 점들은 멀티미디어언어교육 학술지의 특징이라고 하겠다.

글로벌 영어교육 학술지의 경우 12편의 논문이 교재 관련논문이다. 이들 논문들은 대상이 초등 (7편)과 중학(4편)으로 집중이 되어있다. 연구의 초점이 교과서의 분석에 치중하고 있는 경우가 9편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2000년대 후반으로 오면서 교재 자체에 대한 분석연구에서 자기 주도적 학습이나 인터넷의 활용 등과 관련된 교재 연구가 시행되고 있다.

응용언어학 학술지의 지난 12년간의 게재된 영어교재 관련 연구 경향을 살펴 보면, 전반적으로 다른 학술지에 비하여 관련 연구들이 10편으로 다소 적게 게재가 되었다는 것이다. 특이한 점은 교재 선정기준에 대한 연구(5편)가 다른

학술지에 비하여 비중이 높으며, 교사의 의견을 반영하거나 학습자의 반응에 근거하여 이루어 졌다는 점이다. 다른 학술지와 같이 현행 초·중·고등학교 영어 교과서 분석의 경우 교과서 전체에 대한 분석과 함께 교과서에 나타난 연습문제, 의사소통 책략 등 특정 영역에 집중하여 연구가 이루어졌다.

V. 결론

영어 교재 연구와 관련된 최근 경향 및 특성은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파악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문헌을 분석 하는 방법을 통하여 영어 교재에 대한 전문가들의 관심 요소와 특성을 알아 보고자 하였다. 즉 지난 12년간 국내의 영어 교재 관련 연구를 분석하여 최근 국내에서 관심을 두고 있는 영어 교재의 분야 및 초점이 무엇인가를 파악하였다.

총 9개 저명 학술지의 논문 키워드 검색을 통하여 155편의 분석 대상 논문을 추출하였다. 이들 논문을 분석한 결과 초등 교재 대상 연구가 가장 많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에는 대학 및 성인에 대한 교재 연구가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연구 주제별 검토 결과, 분석 연구가 가장 많이 이루어진 연구임을 파악하였다. 이에 교사 관련 연구 등 다양한 연구 주제가 다루어져야 함을 본 연구자는 제안하였다. 세부 영역 부분을 살펴본 결과 교재에 수록된 어휘 관련 연구가 상당수를 차지하고 내용적인 측면에 대하여서도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음을 알 수 있었다. 향후 확대가 필요한 연구 영역으로 학습자 특성이나 평가와 관련된 교재 연구임을 언급하였다. 연구 방법론상으로는 분석적 방법이 역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다행스럽게도 교사나 학습자 반응을 포함한 연구가 존재하고 있었다. 앞으로 연구 방법에 있어서 교재를 사용한 학습자들의 영어 발달 측정이 포함되는 연구가 필요 하다고 본 연구자는 제안하였다.

학술지 별 특징을 살펴본 결과 매년 출간이 4회에 달하는 학술지의 경우 다양한 세부 영역 및 대상, 방법을 포함한 연구들이 있었다. *초등영어교육*이나 *멀티미디어언어교육* 학술지의 경우 학술지 특성상 초등 대상 교재 연구와 멀티미디어 교재 개발 관련 연구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응용언어학* 학술지의 경우 다른 학술지에 비하여 관련 연구가 다소 적게 수록된 점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후속 연구 및 연구관련 활동을 제시하자면 영어 교재 및 교재 연구의 분류 기준을 전문가 협의를 통하여 마련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영어 교재 정보 및 교재 연구 자료를 체계적으로 전산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교재 관련 연구에 대한 교재 개발자 및 사용자들의 접근성이 보다 용이하여 질 것이다. 더불어 국외의 영어 교육

전문가들과 협력 연구를 진행한다면 교재 관련 연구의 다양성을 극대화하는 방안이 도출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 김정희. (2011). 영어 교재 관련 연구에 대한 분석: 현대영어교육을 중심으로. *현대영어교육*, 12(1), 110-125.
- 이성희. (2006). 영어교육에 게재된 영어 교재 관련 연구 추세 분석. *영어교육*, 61(특별호), 149-170.
- 정영국, 조미옥. (2003). 국내 교재론 연구 동향. 정영국 (편). *영어 교재론 연구 1* (pp. 175-226). 서울: 한국문화사.
- Alderson, J. C., & Scott, M. (1992). Insiders, outsiders and participatory evaluation. In J. C. Alderson & A. Beretta (Eds.), *Evaluating second language education* (pp. 25-60).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Allwright, R. L. (1981). What do we want teaching materials for? *ELT Journal*, 36(1), 5-18.
- Breen, M. P., & Candlin, C. N. (1987). Which materials?: A consumer's and designer's guide'. In L. E. Sheldon (Ed.) *ELT textbooks and materials: Problems in evaluation and development* (ELT Documents 126) (pp. 13-28). London: Modern English Publications/The British Council.
- Byrd, P. (1995). (Ed.). *Material writer's guide*. New York: Heinle & Heinle.
- Crawford, J. (2002). The role of materials in the language classroom: Finding the balance. In J. C. Richards & W. A. Renandya (Eds.), *Methodology in language teaching: An anthology of current practice* (pp. 80-91).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unningsworth, A. (1995). *Choosing your coursebook*. London: Heinemann.
- Ellis, R. (1998). The empirical evaluation of language teaching materials, *ELT Journal*, 51(1), 36-42.
- Harmer, J. (2007). *The practice of English language teaching*. Harlow: Longman.
- Johnson, K., Kim, M., Ya-Fang, L., Nava, A., Perkins, D., Smith, A. M., Soler-Canela, O., & Lu, W. (2008). A step forward: Investigating expertise in materials evaluation, *ELT Journal*, 62(2), 157-163.
- Kim, Haedong. (2002). Procedures for the selection of a textbook: A university general English course. *English Teaching*, 57(1), 241-268.
- Matthews, A. (1985). Choosing the best available textbook. In A. Matthews, M. Spratt, & L. Dangerfield (Eds.), *At the chalkface: Practical techniques in language teaching* (pp. 202-206). London: Edward Arnold.
- McDonough, J., & Shaw, C. (2003). *Materials and methods in ELT: A teachers guide* (2nd ed.). Oxford: Blackwell.

- McGrath, I. (2002). *Materials evaluation and design for language teaching*. Edinburgh: Edinburgh University Press.
- Mishan, F. (2005). *Designing authenticity into language learning materials*. Bristol: Intellect.
- O'Neill, R. (1982). Why use textbooks? *ELT Journal*, 36(2), 104-111.
- Richard, J. C. (2001). *Curriculum development in language teaching*.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Roberts, J. (1998). Evaluation of course books or materials evaluation. In K. Johnson & H. Johnson (Eds.), *Encyclopedic dictionary of applied linguistics: A handbook for language teaching* (pp. 119-125). Oxford: Blackwell.
- Rubdy, R. (2003). Selection of materials. In B. Tomlinson (Ed.), *Developing materials for language teaching* (pp. 37-57). London: Continuum.
- Sheldon, L. E. (1987). (Ed.). *ELT textbooks and materials: Problems in evaluation and development* (ELT Documents 126). London: Modern English Publications/The British Council.
- Skierso, A. (1991). Textbook selection and evaluation. In M. Celce-Murcia (Ed.), *Teaching English as a second or foreign language* (2nd ed.) (pp. 432-453). Boston: Heinle & Heinle.
- Tomlinson, B. (1998). (Ed.). *Materials development in language teaching*.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Tomlinson, B. (2003). (Ed.). *Developing materials for language teaching*. London: Continuum.
- Tomlinson, B. (2012). State-of-the-art article: Materials development for language learning and teaching. *Language Teaching*, 45(2), 143-179.
- Willis, J. (1996). *A framework for task-based learning*. Harlow: Longman.

예시언어(Examples in): English

적용가능 언어(Applicable Languages): English

적용가능 수준(Applicable Levels): Elementary/Secondary/Tertiary

김해동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영어교육전공

130-791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270

Tel: (02) 2173-3017/ H.P.: 010-8448-3715

Email: khd@hufs.ac.kr

Received 16 December 2012

Revised 29 January 2013

Accepted 15 February 2013